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김 현 옥 박사

원유품질등급제의 실시를촉구한다.

1. 원유의 의미

원료유(原料乳, Raw milk) 또는 원유(原乳)는 수천가지 우유제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젖소의 제1차 생산물이다. 따라서 원료유의 질은 이 원료유로부터 만들어지는 수천가지 유제품의 품질과 수량을 좌우하게 됨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더우기 원료유의 질은 소의 몸과 먹이에 따라 차이가 나며, 소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젖을 짜며, 어떻게 짠젖을 다루느냐에 따라 그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수천가지 유제품의 품질은 젖소를 길러서 젖을 생산하는 낙농인의 손에 따라 좌우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바로보아야 될 것이다.

아울러 원유는 낙농인의 주된 생산물이고 주된 소득원이며 낙농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된 경제수단임도 있어서 안될 것이다. 따라서 원유는 영양적 및 위생적 품질을 반영한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반영한 가격에 공정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조건이 귀중한 유제품의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낙농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든것의 근본이 원유의 품질검사 및 가격제도임을 우리는 깊게 인식해야 될 것이다.

2. 현 원유가격 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원유가격 제도는 1977년 실시된 이래

한국낙농의 안정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로 현 유가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 할수 있으나 그런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낙농의 여러가지 문제는 현 제도내에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좀 더 발전적이고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제도의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제도의 문제점은 제도자체의 경직성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의 제도와 조직으로서는 낙농의 불황기와 수급의 불균형을 대처할 수 없음은 우리들 앞에서 증명되고 있다.

현 제도는 오늘날 과학적으로 발전된 원유의 품질을 정확히 반영하여 유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농민은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투자도 할 의욕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적으로 거래의 공정성이 결여된 상황을 유발하고 원유의 생산자와 구매자간의 불신요인을 증대시키며, 수요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기 할수 없게 하며 더 크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태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좀더 장기적인 한국 낙농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유의 품질등급 제도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이며 이 제도를 관장하고 낙농산업의 안정과 발전적 노력을 담당할 수 있는 낙농진흥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업계, 농민, 학

계의 일치된 주장이라고 할수 있다.

3. 원유품질등급 제도란 ?

원유의 품질이란 원유를 쓰는 목적과 쓰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만족시키는 요인들을 보면 원유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인 성질들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요인들이 원유의 사용목적과 사용자의 만족도를 결정하게 되며, 이 요인들을 품질요인이라고 하며 이 품질요인들은 원유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각각 다르며 몇가지 중요한 품질요인들이 원유의 품질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품질요인을 검사하지 않고 이 몇개의 중요한 품질요인만을 검사하므로써 원유의 품질을 아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유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 관심대상은 영양성분량과 위생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영양 성분중에서 단백질과 지방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고 있으며 건강한 젖소에서 짠 원유의 가장 중요한 위생척도는 총 미생물수와 체세포라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따라서 원유의 품질등급은 이 네가지 요인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신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검사해서 가공업자, 낙농민, 지도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므로써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낙농민을 지도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여 낙농민이 원유질을 개선하므로써 낙농수입을 늘리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 줄수 있는 것이다. 모든 상품의 가치는 1차적으로 그 상품의 효용성과 품질에 따라서 정해지며 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원유는 그 상품의 성질 때문에 효용성이 높은 생산품이면서도 낙농민 스스로 시장의 수요공급에 대처할수 없으며 따라서 협동조합 내지는 낙농관계 기구가 낙농산업의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기구들은 원유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낙농산업이 안정적 발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원유의 가격정책을 이 품질요인들을 검사하여 얻어진 등급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

실이다. 아울러 이 품질등급에 따른 유가제도에 원유수급조절 기능까지 함께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4. 품질등급제도의 시급성

우리는 이 짧은 글에서 현재 한국원유가격 및 품질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으며 좀더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을 기할 수 있는 품질검사 제도의 필요성이 시급하고 낙농안정 발전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낙농진흥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우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전기반 확보를 위해 현 시점에서 낙농민을 포함한 전 낙농계가 그 정책구상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낙농산업 발전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낙농발전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뼈아프게 지금 느끼고 있는 바와같이 현 시점의 한국낙농 제도는 건강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한 산업의 건강은 그 산업을 움직이고 그 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건강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체하면 소화제가 필요하고 나쁜 물은 정화해서 먹어야 하며 적당히 운동도 하고 후세를 위해 교육과 연구에 투자도 해야하고 저축도 해야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모든일을 맡아줄 가정이 없는 것이다. 가정은 가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할 가족으로 구성되며 질서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분담되는 인간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조직체이다.

한 사람의 발전이 가정에서 시작하듯이 낙농산업의 발전도 이러한 낙농진흥 기구를 통해 갈고 닦을때 가능한 것이며 낙농산업이 이룩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다. 가정이 한번 파괴되거나 가족이 흩어지면 가정을 다시 만드는 일은 거의 어렵게 된다. 이제 온 낙농가족이 한개의 보금자리를 만들자는 뜻이 있을때가 바로 서둘러서 좋고 튼튼한 가정을 만들때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온 낙농계는 이 원유등급유가제도의 실시와 낙농진흥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작업을 더 늦기 전에 시급히 착수해야 되리라고 믿는다.